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까마득한 날에
㉠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 눈 나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 백마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 이육사, 「광야」 -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자를 부르며 말을 건네고 있다.
 - ② 청유형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 ④ 처음과 마지막 연에 비슷한 구절을 배치하고 있다.
1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연에서 '이곳'은 침범할 수 없는 '광야'를 뜻한다.
 - ② 3연에서 계절의 순환이 나타난다.
 - ③ 4연에서 화자는 미래를 위해 노력하려 한다.
 - ④ 5연에서 화자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두려워한다.
16. ㉠~㉣ 중 다음을 뜻하는 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 부정적 현실 | ○ 극복해야 할 고통 혹은 시련 |
|----------|-------------------|
- ① ㉠ ② ㉡ ③ ㉢ ④ ㉣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말뚝이 (병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양반 삼 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 형제 만이는 샌님, 둘째는 서방님, 끝은 도련님이다. 샌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건을 썼다.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샌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야!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아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이 생원이라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말뚝이 쉬이. (반주 그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짚따란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주전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 자문죽을 한 발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모까지 회자죽, 오동수복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 나 무리 거이 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흰화를 금하라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흰화를 금하였다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말뚝이 쉬이. (춤과 반주 그친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 육률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장단 좀 쳐 주오.
양반들 아아, 이놈 뭐야!

- 작자 미상, 「봉산탈춤」 -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슷한 재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 ② 음악과 춤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서술자의 설명을 통해 사건이 묘사되고 있다.
 - ④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극이 진행되고 있다.
18.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뚝이는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 ② 양반들은 악공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 ③ 샌님은 삼 형제의 막내답게 방정맞게 행동하고 있다.
 - ④ 도련님은 짚따란 곰방대로 양반의 권위를 높이고 있다.
19. '말뚝이'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내용을 바꿔 말하고 있다.
 - ② 상대의 말에 공감하면서 상대를 위로하고 있다.
 - ③ 상대 행위의 부당함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 ④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며 상대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속에 썩은 통나무 한 개비를 집어 던졌다. 그러나 미처 그 통나무 속에 개미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통나무가 우지직,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불안한 개미들이 떼를 지어 쏟아져 나오며 안간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들은 통나무 뒤로 달리더니 넘실거리는 불길에 휩싸여 ㉠경련을 일으키며 타 죽어 갔다. 나는 황급히 통나무를 낚아채서 모닥불 밖으로 내던졌다. 다행히 많은 개미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어떤 놈은 모래 위로 달러가기도 하고 어떤 놈은 솔가지 위로 기어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다. [A] 개미들은 좀처럼 불길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 않는다. 가까스로 공포를 이겨 낸 개미들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 통나무 둘레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그 어떤 힘이 그들을 내버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일까?

(중략)

사회 생물학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의 사회적 행동의 ㉡진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사회 생물학 연구의 가장 중심에 놓인 질문은 바로 이타성에 관한 것이다. 생물이란 모름지기 누구나 자기를 위해 사는 이기적 존재인 것 같은데 솔제니친이 관찰한 개미들은 왜 스스로 목숨까지 버리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일까?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명쾌하게 설명한 사회 생물학 이론에 따르면, 길으로는 이타적으로 보이는 개미의 행동도 유전자의 수준에서 보면 보다 많은 복사체를 ㉢후세에 남기려는 이기적 행동의 ㉣산물이다. 솔제니친의 수필 ‘모닥불과 개미’가 이끌어 준 학문인 사회 생물학은 내게 세상을 보는 전혀 새로운 렌즈를 제공했다.

- 최재천, 「과학자의 서재」-

2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요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전문가의 의견을 언급하고 있다.
- ③ 질문을 던지고 답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통계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21. 사회 생물학의 관점에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큰 재난에 자포자기했기 때문이다.
- ② 밝은 불빛을 향하려는 본능 때문이다.
- ③ 종족의 번식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④ 공포에 놀려 달아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함이다.

22.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련: 근육이 별다른 이유 없이 떨게 되는 현상.
- ② ㉡진화: 불이 난 것을 끄는 것.
- ③ ㉢후세: 다음에 오는 세상 혹은 다음 세대의 사람들.
- ④ ㉣산물: 어떤 일의 과정이나 결과로 생긴 사물이나 사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때 서울 장안에는 책세집이 여러 곳 있었다. 책세집이란 것은 가난한 선비들이 생계가 막연하니 궁리를 해서 ㉠으로 마련한 청빈(淸貧)한 생활 양상의 하나였다.

[A] 먼저 장지(壯紙) 한 축을 사다 놓고 언문 궁체(宮體)로 ‘삼설음’, ‘사씨남정기’, ‘장화홍련전’, ‘유충렬전’, ‘옥루몽’, ‘구운몽’, ‘홍부전’, ‘춘향전’, ‘삼국지’ 등을 베낀 후에 책을 매고 한 장 한 장 책장마다 들기름을 칠했다. 여러 사람이 열독(閱讀)하는데 책장이 피어 상하기 쉬운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수십 권 내지 수백 권의 책이 된 후엔 곳간과 방 안에 가득하게 선반을 달아 놓고 손수 만든 책을 차례차례 쌓아 놓는다.

책세집이 한군데 생겼다는 소문이 동네 안에 퍼지면 언문을 깨친 처녀 색사와 아낙네들은 다투어 가며 돈을 주고 책을 빌려다 보았다. 책을 빌려다 보는 데도 옛적 일이라 제법 순후(淳厚)하고 멋이 있었다. 책을 빌려 오는데 선금(先金)을 내지 아니하고 통주발이나 늦대접 한 개를 먼저 할머니 계집종을 시켜서 보내고 읽고 싶은 책을 빌려 온다. 대접과 사발로 전당품(典當品)을 삼는 것이다. 빌려 온 사람은 며칠 동안 책을 다 읽은 후에 비로소 엽전 몇 닢이나 동전 몇 푼을 주고 도로 주발과 대접을 찾아온다. 선비들은 이것으로 생계를 삼았다.

- 박종화, 「책세집」-

23. [A]의 내용 전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정에 따라 견문을 기록하고 있다.
- ② 상황을 과정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③ 기준에 따라 대상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④ 다른 대상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2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난한 선비들이 생계를 위해 책세집을 운영하였다.
- ② 책세집의 서적은 한문 소설이 주를 이루었다.
- ③ 책세집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 ④ 책을 빌리기 위해 전당품을 맡겼다.

25. ‘겨우 먹고 살아가는 방법이나 피’의 뜻을 지닌 한자성어로 ㉠에 들어갈 것은?

- ① 호구지책(糊口之策) ② 유유자적(悠悠自適)
- ③ 속수무책(束手無策) ④ 구밀복검(口蜜腹劍)